

“포교공간이 스포츠센터로 돌변”

봉은사 문화회관 공사중단 안팎

지역포교와 불교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중인 서울 봉은사 문화회관이 대기업의 영리를 위한 고급 스포츠센터로 설계 변경되어 건립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 봉은사문화회관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영담)가 중앙종회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

봉은사특위는 5개월간의 조사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사 시공업체인 (주)대우가 사업의 계약정신과 사업취지를 훼손하여 중단과 봉은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승인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특위가 지적한 사항은 대우측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 여기에 봉은사 소임자와 관계자들의 관리책임 소홀이 문제제기됐다.

봉은사문화회관 사업은 1982년 총무원이 추진키로 한 사하촌철거와 마북불방안등 도량을 정비하는 봉은도사근린공원사업의 일환으로 91년 사업권이 총무원에서 봉은사로 넘어오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봉은사는 (주)동림과 공동출자방안을 수립해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약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 (주)대우와 손을 잡았다.

먼저 대우측에 제기되는 의혹은 공사비 과다 책정, 94년 봉은사는 사하촌정리와 신영공간 마련이라는 사업목적으로 대우와 공사업체 225억, 운영수익금 47억5천만원, 그리고 10년간에 걸쳐 운영권을 대우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중단승인을 받아 약정 체결을 했다. 그러나 95년 공사가 시작되면서 골조연습장을 실외로 변경하고 주차장 용도로 지하 2개층을 더 파내는등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위는 이로인해 공사비가 4백5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물량산출에 있어서도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특위는 조사결과 대우측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측은 계약서에 ‘회원권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봉우레프츠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운영과 계획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우측에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 특유의 이윤추구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대우측은 상류층이 주류를 이루는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문화회관을 고급스포츠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관



◇서울 봉은사기 건립중인 봉은문화회관이 이미 골토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비과다 증액, 설계변경등의 의혹이 있어 조계종 중앙종회가 사업승인 취소를 결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시공기업 이윤집착 골프장등 설계 변경 건설비 과다책정·분양임대 계약도 위반 대책특위 사업취소·관련자 의법조치 결의

단, 실제 골프연습장을 확충해 실외로 설계 변경하는등 시설의 고급화로 선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우측 공사관계자들은 “모든 공사는 사할측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고, 설계변경은 사할측과 합의했으며 증액된 비용에 대해 합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대우측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감독과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봉은사 집회직 소임자들도 중립중립을 위해 한 사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봉은사특위의 보고에 따라 중앙종회는 △문화회관 사업승인취소요구 △

문화회관 관련자 의법조치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업무를 총무원에 이관했다.

또한 시공업체인 (주)대우에 대해서도 △계약서 정신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 △ 골토,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다청구한 공사비에 대해 대우가 책임질 것을 결의하고 특위를 해체했다.

현재 봉은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지하5층 까지 골토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봉은사 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대우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그동안 사업진행상 발생한 기성액이 70여억원에 이르고, 골토현장을 안전문제상 오랜기간

방치하기 어려울상황이다. 따라서 종회가 결의한 사업승인취소까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봉은문화회관건립을 지역포교를 위한 문화공간확보라는 취지에 따라 설계 변경하고 계약사항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 사업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개발부지사업 전담부서 설립 △대형사업의 공개입찰 등을 제안했다.

이준엽 기자

시론

경주에서 날아온 비보

경주로부터 날아온 비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다른 문화재도 아닌 바로 우리민족의 자랑인 석굴암에 균열이 생겨서 파괴 직전 단계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 내용이 때문이다. 그렇기 않아도 지난해 12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정식 등록이 되어 국민 모두가 호뭇하게 생각하는 이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충격의 도가 더한 것 같다.

석굴암 균열 ‘위험 수준’

한국 국민이라면 또한 한국을 찾은 외국인까지도 석굴암을 찾아서 경주 토함산을 올라갔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총 길이가 14.8m나 되는 석굴은 돌을짜서 돌을 만들고 있는데 본존이 여러좌상을 중심으로 주위의 벽에 39구의 보살상, 나한상, 역사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존은 국내 최대 석굴 불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원숙한 조형기법은 삼국시대 신라 조각물 중 백미로서 거의 완벽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주변 계 상에서도 보이고 있어 실로 한국 불교 조각의 대표격임을 틀림없다.

그런데 본존불과 연화대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가부좌를 튼 본존불 양쪽 경강이 사이에 부채꼴로 퍼져진 가사 자락 가운데 본존불 다리와 맞닿은 곳에 길이 33cm, 폭 1.5mm 크기의 균열이 생긴 것이다. 구한말 석굴암 앞면이 붕괴되면서 가사 자락의 일부가 파손되어 이를 일제시대인 1910년대와 그후 1962년 문화재 관리국이 보수를 실시하면서 시멘트와 돌가루 등을 혼합하여 원형대로 복원하였는데 현재 균열이 생긴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복원된 가사 자락이 본존불과 밀착되면서 본존불 줄다리 부분의 석재에도 미세한 균열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직접 조사한 경희대 김희철교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부동 침하 현상이 진행 중이며 한 마디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하였다.

국보 중의 국보로 여겨온 석굴암의 보존이 이런 상태이고 보니 다른 문화재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국민들

은 우려하게된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 보수를 계기로 그 원형이 변형을 가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보존 상태가 손을 대기 전 상태보다 더 악화 된 경우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1962년 석굴암 보수 때 습기와 온도 조절을 위하여 그 오른쪽에 설치한 기계실에서 가동 중인 공기조절기가 내뿜는 소음이나 진동이 오히려 석실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스무리한 예로 공주의 무령왕릉도 이런 기계 설치 후 오히려 그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빠져있으니 실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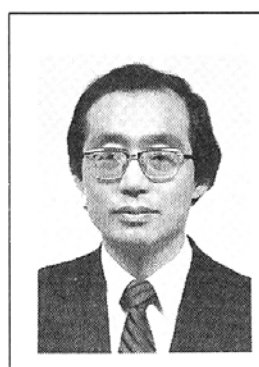
문화재는 한 민족의 얼어온 발자취를 담고있고 그 우월성을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물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잘 보존하고 계승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 각자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보가 285개, 보물도 1227개나 되며 그 밖에도 수많은 문화재들이 방방곡곡에 있다. 현재의 문화재관리국 같은 하나의 국수준에서는 이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지일 수도 있다. 일본처럼 이것을 문화청으로 승격시켜 전체적으로 통괄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는 시급히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한다.

365일 관리보호 절실

또한 로마문화재센터처럼 각 방면에 걸쳐 고도의 문화재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석굴암 같은 문화재의 경우, 이를 365일 전담하는 기술진이 상주하여 사시각각의 현상을 파악하여 영구적인 보존책을 심도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자체도 문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영국이 1972년 문화재 보호법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크게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 차원의 보존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재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킴으로써 석굴암 같은 문화재 보존에 위험 신호가 또다시 없도록 해야 하겠다.



임 효 재 (서울대 교수·문화재위원)

직장·직능 포함 하부조직 결성

조계종 중앙신도회 추진 실무단 활동 2개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을 위한 교구신도회 구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각급신도회구성 추진실무단(단장 혜창, 총무원 총무부장)은 11월 중에 불국사 동화사 수석사 등 3개 교구신도회를 구성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8~9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하면 이미 결성되어 있는 월정사 직지사 마곡사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 교구본사에 신도회가 구성된다.

추진실무단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부처님오신날 전까지는 중앙신도회를 창립할 수 있다”며 “종단의 행정력과 지도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와관련 12월중에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와 함

께 홍보광플렛을 제작, 배포해 적극적인 신도회 구성작업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포교원도 직장·직능별 대표자연수(12월 7, 8일)와 전국사찰 신도회장단 연수(12, 14, 15)를 잇따라 열어 신도회 구성을 독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교구신도회는 실질적인 신도조직은 아니어도 임원 중심의 신도단체는 있었다. 이같은 교구신도회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실무추진단의 주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에 쫓겨 머릿수 채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 중앙신도회는 중앙기구를 먼저 발

족하고 각 사찰 및 교구신도회, 지역 및 전국규모의 신도단체를 아우른다는 방향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영입이 여의치 않자 추진력을 잃었다.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발기인대회 이후 지지부진한 준비작업을 벌여와 비난을 모면

교구신도회 연내 12곳 발족

내년초 창립 ‘청신호’

사찰과 유기적 연대 ‘과제’

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방향을 선회, 하부단위부터의 조직작업에 착수했다.

추진실무단은 교구신도회 구성을 진행하면서 각 지역 및 전국단위 신도단체도 중앙신도회에 합류시킨다는 방침을 정하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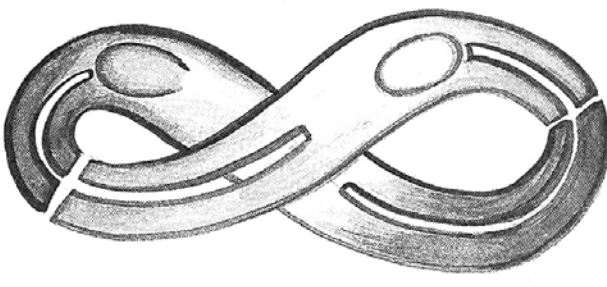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교 98

방하착! 호통 속에 자유의 열쇠가 있으니.

임양님이 조주선사께 법을 물었다. 임양: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때엔 어떠합니까?” 조주: “방하착(放下着)하라.” 임양: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 놓습니까?” 조주: “그러면 지고 가거라.” 임양: “.....” 조주선사는 무엇을 내려 놓으라고 한 것인가.

게 지배 당하기 시작한 것인데도 그것을 싫다하기보다 애타게 원한다. 누구에게나 그만의 특성, 즉 개성이 라는 게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 개성이 강하다거나 개성이 있다는 말은 대체로 괜찮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성이 강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또한 애매함에 불과하다. 남다른 그 무엇에 대해 특징적으로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실현이란 이름아래 그런 저런 애매함을 선호하며 살고 있다.

조주선사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대상에 집착하는 행동, 그 무엇에 애매한 마음을 놓고 쉬라고 한 것이다. 심지어는 임양의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다.’는 생각까지도 내려 놓으라 했다. 왜 놓으라고 했는가. 애매함은 결코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상(無常)한 것에 대한 집착이 참일수 있겠는가. 항상하는 것, 한결같은 것이



라야 비로써 참일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은 변화할뿐 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無常을 常으로 본다. 常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한다. 곧 사라지고 말 것을 영원한 줄 알고 좇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조주의 밝은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철박서니 없는 일이었겠는가. 방하착! 호통을 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란 사실 조금 오래가는 착각일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눈겨울에 무엇이 썩어서 잘못 보고 있음에 불과하다. 無常을 常으로 보는 지식은 無知요 착각이다. 무상을 무상으로 보는 조주의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그러니 무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방향은 끝나지 않는다. 이 애매함에 풀리지 않는다.

‘내려놓으라’는 조주의 호통은 우리에게 무지의 장막을 찢고 빛을 받아들

이라는 경쾌이요, 얽히고 설켜진 엉클을 가르고 새 길을 내라는 주문인 것이다. 조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자유인의 삶을 창조해가는 열쇠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내려 놓음은 무엇인가. 행동의 열매를 따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성공과 실패를 나의 몫으로 삼지 않는 것. 자아 의식을 내동댕이 치는 것 - 마치 저 연잎이 물에 젖지 않듯이 마음으로 애매 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행동의 결과를 자의식의 몫이 아니라 오히려 내 참 성품의 몫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오로지 행동 그자체가 되는 것. 모든 꾸밈을 버리고 참 성품의 빛에 일체를 내 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의 진수를 맛보는 길은 방하착! 그 호통 속에 있다.

협찬 : 홍 운 표